성철 스님 阿難시봉 40년…

아난

원택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 1967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친구를 따라 찾아간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처음 만났다. 성철 스님의 '니 고마 중 되라'는 말 한 마디에 1972년에 출가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도서출판 장경각 대표, 부산 고심정사 주지로 있다. 1998년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1999년 제 10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환경조형부문을 수상했다.

"내 인제 갈란다. 너거 너무 괴롭히는 거 같애."

1993년 11월 3일, 낙엽이 쌓이기 시작한 가야산. 해인사 퇴설당에서는 노장이 제자를 불러 세연을 정리하고 있었다. 노장을 20년 동안 시봉한 제자는 스승의 낮은 목소리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생사(生死)가 일여(一如)한 것쯤이야 이미 생각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제자는 그 동안의 공부가 무색했다. 11월 4일, 기나긴 침묵의 밤이 지나고 창문으로 여명이 번져올 즈음, 힘겹게 눈을 뜬 노장은 제자의 가슴팍에 기대어 마지막 숨을 모아 법을 짓는다. "참선 잘 하그래이!" 마침내 노장의 숨소리는 저편으로 건너가고 제자는 스승의 마지막 법과 법구를 거둔다. 그 법구는 '산은 산 물은 물'이란 법문으로 한 시대를 붙들어 놓았던 가야산 호랑이 성철 스님의 것이고, 노장의 마지막 숨소리를 받은 제자는 원택 스님이다.

한국불교에 '성철'이라는 이름이 굵은 글씨로 남았다면, 그 굵은 글씨의 한 획 정도는 '원택'일 것이다. 성철 스님이 사바를 떠난 지도 20년이 흘렀다. 하지만 성철이라는 이름 옆에는 아직도 원택이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고 있다. 아니 원택이라는 이름 옆에 성철이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고 있다. 한국불교라는 숲을 넓히고 한 시대의 스승으로 살다 간 '가야산 호랑이 성철' 옆에서 20년을 함께 했고 지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원택 스님을 만났다.

효봉 스님 좌탈 지켜보며 발심

대구에서 살았던 원택 스님은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이끌려 절엘 다녔다. 하지만 스님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절에 다닐 기회는 점점 줄었고, 스님의 기억 속에서 절이라는 공간은 잊혀졌다.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스님은 춘원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읽게 된다. 성철 스님의 불연이 〈증도가〉에서 시작됐다면 원택 스님의 불연은 소설 〈원효대사〉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원택 스님은 불교에 끌리기 시작한다. 스님은 막연히 절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대승사 고등학교학생회에 들어간다. 하지만 불교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나 경험은 하지 못한다. 일반인들이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책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고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스님은 그 시절을 불교적 정서 속에서 청년기를 보낸 것이 의미라면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 진학한 스님은 대학에서 신행을 이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스님이 다닌 연세대학교에는 불교학생회가 없었다. 스님은 할 수 없이 고등학교 때처럼 절에서 운영하는 학생회를 찾았다. 서울에 있는 절이라고는 조계사밖에 몰랐던 스님은 조계사를 찾았지만 스님이 생각하는 학생회 활동은 할 수 없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한참 일기 시작했던 스님으로서는 아쉬운 일이었다. 지속적인 신행과 구체적인 공부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덧 대학생활도 거의 끝나갈 무렵인 4학년 때였다. 스님은 당시 통합종단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이 입적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다. 밀양 표충사에서 입적하신 효봉 스님의 영결식이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영결식을 보기 위해 조계사를 다시 찾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결식장을 채우고 있었다. 효봉 스님은 앉은 채로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관의 모양도 눕지 않고 앉은 모습이었다. 원택 스님은 효봉 스님의 법구가 이운되는 짧은 시간에 효봉 스님의 좌탈 모양의 관을 보게 된다. 효봉 스님의 좌탈을 보면서 원택 스님의 마음 속에서는 또 한 번 불교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다.

춘원의 〈원효대사〉 읽고 불교 관심
효봉 스님 '좌탈' 보고 또 한번 관심

1971년 3월 성철 스님과 첫 만남
'니 고마 중 되라' 한마디에 출가
오랜 상기병으로 참선수행 중단
뒷방에서 '백일법문' 듣고 기록해
〈본지풍광〉등 11권 법문집 출간 계기

"위대한 스승 모신 불제자로서
대중에게 '여시아문' 의무감 생겨"
출판, 사리탑조성, 겁외사 창건 등
열반 후에도 스승 알리는 일에 매진
기념관 조성, 〈백일법문〉증보판 출간

영원한 스승 성철 스님과의 첫 만남

원택 스님은 1971년 3월 성철 스님을 처음 만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스님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해인사 백련암에 가게 된다. 친구의 대학 동창이 출가해 백련암에 있었다. 원택 스님은 그때 친구로부터 '성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다.

"어이 들어오이라." 방 안에서 카랑카랑한 음성이 들려왔다. 원택 스님은 방에 들어 큰스님을 처음 보는 순간 그 눈빛에 주눅이 들어 얼굴도 제대로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원택 스님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큰스님, 오늘 처음 뵙게 되었습니더. 그 기념으로 저희에게 평생 지남(指南)이 될 좌우명 한 말씀 해주이소."

원택 스님은 만배를 해야 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성철 스님으로부터 좌우명 하나를 받는다. "속이지 마라!" 원택 스님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큰스님이 주는 좌우명이라면 평생 실천하려고 해도 힘든, 근사한 말씀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너무나 간단하고 가벼워 보인 것이다. 더구나 그토록 힘들게 절을 한 대가 치고는 너무나 약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처음 뵙게 된 큰스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 실망스럽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백련암을 나섰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때였다. 원택 스님은 문득 석 달 전 백련암에서 받은 성철 스님의 '속이지 마라'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는 큰스님의 말씀을 '남을 속이지 마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좌우명이 무겁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석 달 뒤에 문득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땐 '자기를 속이지 마라'로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평생 지키지 힘든 좌우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원택 스님은 왠지 큰스님이 자꾸만 떠올랐다.

해인사 백련암으로의 출가

그 해 7월, 원택 스님은 이번에는 혼자서 백련암을 찾았다. 보통 문이 굳게 잠겨 있는 백련암인데, 그날따라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마침 큰스님 혼자서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큰스님, 저는 본디 참선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더. 큰스님께서 화두를 주셨으면 합니더." 원택 스님은 이번에는 큰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는다. '삼서근(麻三斤)'이었다.

그런데 막상 수행에 들어가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난생 처음 받은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진하고 또 정진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1972년 새해가 밝고, 원택 스님은 문득 백련암으로 향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진전이 없어 큰스님을 뵈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 길이 원택 스님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길목이었다.

"니 중 안 될래? 고마 중 되라."

원택 스님을 본 성철 스님이 말했다. 원택 스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다. 원택 스님은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었고, 참선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출가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 난감해 하는 원택 스님을 보고 성철 스님이 한 말씀 더 한다.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뜻이 있는 기라. 내가 괜히 너보고 중 되라고 하겠나. 나는 함부로 남보고 중 되라고 안 한데이. 세상살이가 좋은지, 백련암에서 참선 잘해 도 닦는 것이 좋은지 잘 생각해봐."

대답을 못하고 방에서 나온 원택 스님은 이런저런 상념에 잠긴다. 뒤척이며 절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왠지 마음 한 구석에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출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황당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솔솔 들기 시작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건만, 어찌된 일인지 틈이 생기기 시작한 마음은 둑이 무너지듯이 무너져갔다. 그리고 원택 스님은 그 길로 출가했다.

여시아문… 성철 스님 법문 노트에 필사

원택 스님은 힘겨운 행자 생활을 거치고 공양주와 시찬 소임을 보며 성철 스님을 시봉한다. 그리고 마침내 화두를 들고 몇 년 간 참선에 정진한다. 그런데 원택 스님은 상기병을 얻게 된다. 원택 스님에게 좌선이 잘 맞지 않았던 것이다. 원택 스님의 상기병은 꽤 오래 갔다. 그러자 큰스님은 원택 스님에게 좌선이 맞질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상기병도 고칠 겸 잠시 원주 소임을 보면서 행선을 권했다. 선승을 스승으로 모시고 참선 공부를 하겠다고 출가했던 원택 스님이었다. 좌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에 서있는 것이었다. 힘든 시간이었다. 원택 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 1리 58번지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